

전남광주지방회, 성청연합단합대회 개최



전남광주지방회 청년부(부장 박선정 목사)는 지난 8월 17일 압해중앙교회(신현파 목사)에서 지방회 청년들이 연합하여 단합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압해중앙교회 찬양단과 김반석 부목사가 찬양인도를 하고 박선정 목사(세광교회)가 다니엘서 1장 9절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장봉 목사(남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김보겸 전도사(세광교회)의 진행으로 조별 모임과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식사와 교제를 함께 나누며 청년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모임에는 압해중앙교회, 세광교회, 샘솟는교회, 사랑의교회, 생명수샘교회, 남광교회 청년들과 교역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광주지방회주재기자 이곤민 목사

정화교회, 청소년 예술캠프 'TEEN'S LIGHT' 개최



서울지방회 정화교회(이민철 목사)가 지난 8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이틀간 교회 내 육일극장에서 청소년 예술캠프 'TEEN'S LIGHT'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PC방과 코인노래방 외에 마땅한 문화 인프라가 없어 여가를 위해 홀대·연회동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해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참가자 9명에 강사 11명이 함께해, 1:1 혹은 1:2의 밀도 높은 개인 지도로 수업과 강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들에 걸쳐 밴드악기, 웹툰, 비보잉, 연기, 글쓰기, 작곡편곡 등 다양한 분야 중 관심 있는 과정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체험했다. 강사진으로는 안양대 겸임교수이자 극단 와이대표인 오은국(연기), 이화기독미술협회

소속 작가 백승수(웹툰), 청소년 댄스팀 헤븐 인 더 스트릿(댄스), 배우 여이레(연기), 백석대 문화예술대학원 강사 김은경·윤혜미(작곡&건반), 신인가수상 수상 경력의 김예진(보컬), 백석예술대 강사 서은혜(드럼) 등이 참여해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팀별 발표회가 열려 참가 청소년들이 이틀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이 발표는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콘서트로도 이어지며, 청소년들이 배운 재능을 이웃 섬김으로 확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화교회는 캠프 후속 사역을 위해 매주 목요일 새벽 기도모임을 이어가며 청소년 문화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화교회 제공)

목천성결교회 학생부, 극동방송 방문 통해 선교 비전 다져



천안아산지방회 목천성결교회(김성열 목사) 학생부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방송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기쁨으로 공연을 준비해 찬양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감사와 찬양을 전했으며, 공연 후에는 극동방송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방송선교의 비전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실시간 라디오로 진행된 '소망의 기도회'에 참여해 전국 교회와 함께 중보기도를 드렸다. 학생들은 한 사람의 기도제목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기도의 힘과 연합의

소중함을 경험했다.

견학의 마지막에는 학생부가 준비하고 있는 2027년 라오스 단기선교에 대한 비전도 나눴다. 학생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2027년 라오스 단기선교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더욱 확산하고, 다음 세대가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아산지방회주재기자 김성택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청년 격려의 날' 행사로 다음 세대 위로

서울중부지방회(회장 이규명 목사)가 지난 8월 30일(주일) 오후 4시 30분, 평화교회(이대은 목사)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서울중부지방회 청년 격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각 교회에서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 뜻있는 분들을 모이지 않고 묵묵히 섬겨온 청년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업과 취업이라는 치열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청년들은 부드러운 여름 내내 여름성경학교와 단기선교, 각종 훈련 등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교회 공동체를 섬겨왔다. 서울중부지방회 청년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헌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직접 청년들을 섬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회장 이규명 목사(성은교회)를 비롯해 청년부장 송민우 목사(독일교회), 청년부 서기 김기웅 목사(주은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11개 교회 소속 청년 86명과 담임목사 및 부사역자 25명, 총 111명이 함께 자리했다.

지방회 청년부는 행사를 준비하며 청년들에게 자칫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

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당초 계획했던 레크리에이션 순서를 과감히 탈어내고, 오직 '진정한 힘과 진교'에 집중한 것이다. 참석한 11개 교회는 간단한 인사말 나눈 뒤, 이규명 지방회장의 식사기도로 본격적인 만찬을 시작했다.

이날 정성껏 준비된 고급 뷔페 만찬은 청년부장 송민우 목사가 시무하는 독일교회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마련되어 행사에 더욱 깊은 의미를 더했다. 청년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백미는 참석한 청년 전원에게 전달된 '사랑의 용돈'이었다.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아 1인당 5만 원씩 전달된 이 격려금은, 지방회와 소속 교회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 진진한 감동을 안겼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다음 세대를 향한 지방회의 하나 된 사랑은 결코 작지 않았다.

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만 서있던 청년들이 이날만큼은 온전히 대접받는 주인공이 되었다. 목회자들과 지교회들의 따뜻한 연합이 빛어낸 이번 '청년 격려의 날'은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전망이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교명희 목사

원당성결교회 선교팀, 가스펠 콘서트 개최



고양지방회 원당성결교회(이명화 목사) 선교팀 30명이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을 방문해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선교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필리핀 국립 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딜리만 캠퍼스에서 가스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JPHC(Jesus Philippines Holiness Church) 소속 예성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12개 교회와 1개 선교훈련기관의 청소년 및 성도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SIGMATA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참석자들은 약 2시간 동안 영어 찬양과 파갈록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필리핀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가스펠 콘서트로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스펠 콘서트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성 선교사들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연합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콘서트는 2년 전 공연에서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찬양으로 시작해 필리핀 크리스천들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파갈록 찬양 3곡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즐겨 부르는 영어 찬양을 선보였

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스킷 드림과 그룹댄스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계속되자 계획에 없던 축제송 3곡을 앙코르로 함께 부르고 워십댄스를 이어가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수개월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준비해 온 원당성결교회 청년회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자신들이 가진 음악과 공연의 역량을 선교 현장에서 영어와 파갈록으로 표현하며, 전문적인 재능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당성결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유소년 콘서트와 현지 교회 집회, 시골 교회 재건축, 고아원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가스펠 콘서트 역시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필리핀의 다음 세대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다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정용석 선교사 제공)

안양지방회, 몽골 선교 비전트립 성료



안양지방회(회장 이승근 목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몽골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이번 비전트립은 본 교단에서 파송한 김성철, 박미라 선교사의 지역지를 방문하여 선교사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방문단은 김성철, 박미라 선교사가 사역하는 '비양길 은혜농장'을 찾아 몽골 현지 주민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기후에 맞는 채소를 연구·보급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참석자들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척박한 땅을 기경하여 옥토로 바꾸어 가는 선교사의 열정과 몽골인들을 품고 살아 가는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고 함께 기도했다.

이어 김 선교사가 섬기는 울란바투르의 마르투스교회 성전 건축 현장(대지 1,100평, 건물 250평 규모)을 방문해 합심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 또한 외곽 게르에서 진행된 사역 간증 시간을 통해 김 선교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참석자 전원이 밤늦도록 몽골 땅과 선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

했으며 준비한 선교비와 선교품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비전트립에는 많은 사모들이 참석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일상과 목회 환경 속에서 겪는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깊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사모들은 몽골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목회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회복의 시간을 누렸다. 참석한 사모님 중 한 분은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준비한 집행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몽골 비전트립은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안양지방회는 이번 여정을 통해 소속 목회자 및 사모 간의 깊은 연합을 이루었음을 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목회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양지방회주재기자 엄영호 목사

밝은빛교회 청소년들, 믿음의 공동체 의미 되새겨



밝은빛교회 청소년들이 교회 인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와 신앙교육, 그리고 지역과 세상을 향한 섬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더욱 가까워졌다. 학생들의 밝은 표정과 적극적인 모습은 이번 시간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OUTREACH'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시선을 넓히는 활동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함께 이동하고 현장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이의 활동을 통해 역사와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배움과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움 추억을 만들었고, 공동의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행사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경험했다는 데 있다.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예배드리

는 공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밝은빛교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밝은빛교회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믿음,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서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안양중앙지방회주재기자 박철수 목사

조광택 목사, 지역 발전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



고양지방회 조광택 목사(보배로운에수비전교회·사진)가 경기도 도정 발전과 종교지도자 멘토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7일 경기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조광택 목사는 현재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며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는 한편, 경기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

양한 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교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감당하며 종교지도자 멘토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조광택 목사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고, 지역교회와 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지방회주재기자 김성철 목사